

고 전하며 느티나무가 많아 “비지”라 하였다. 자연부락인 목과(木果)는 고목(古木)이 울창하고 감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3. 가구 분포

총 21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비구정(比丘亭)

조선 선조 때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가 평해(平海)에 유배되어 지내던 곳으로, 경치가 수려해 비구정(比丘亭)이라 하였다. 지금은 정자(亭子)는 없고 느티나무만 울창하다.

제12절 이평2리(梨坪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다천2리와 연접(連接)하고, 서쪽은 비지마을과 접(接)하였으며, 남쪽은 황보리와 인접(隣接)하고, 북쪽은 방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8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592년에 반광문(潘光文)이란 선비가 임진왜란을 피해 들어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산야(山野)에 돌배나무가 무성(茂盛)하여 이평(梨坪)이라 하였다. 심수마을은 약 300년 전에 백문치(白文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때 고산준령(高山峻嶺)과 깊은 계곡(溪谷)에서 물이 흘렀으므로 심수(深水)라 불렀다.

3. 가구 분포

총 22세대가 거주하며 거제 반씨(巨濟潘氏), 대흥 백씨(大興白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춘천 박씨(春川朴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신당(洞神堂)

심수(深水)마을을 지켜주는 동신(洞神)으로, 옛날 많은 인명(人命)을 앗아간 홍역(紅疫)이 이 마을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제13절 정명1리(正明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명계천(明溪川)을 건너 동해(東海)를 바라보며, 서쪽은 금장산(金藏山) 지맥(支脈)인 분향대산(焚香大山) 주봉(主峰)이 솟아있고, 남쪽은 정명2리(正明二里) 섭실(薪谷)과 접(接)하며 북쪽은 정명천(正明川) 건너에 천산(天山)이 있다. 황응청(黃應淸) 효자각(孝子閣)과 안응준(安應俊) 효열각(孝烈閣)이 있다. 마을회관은 2011년에 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379년에 태사당(太師堂) 황서(黃瑞) 선생이 마을을 개척할 때 산세(山勢)가 바르고, 앞 내(川)가 맑게 흐르므로 정명(正明)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평해군(平海郡) 원북면(遠北面)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正明里)로 되었다. 사저(社底)는 조선조 중엽에 사직(社稷)이 있었다 하여 사저(社底)라 하였으며, 속칭 세재라고도 한다. 웅연(熊淵)은 산(山)의 모양이 곰같이 생겼고 마을 앞에 못이 있다 하여 웅연(熊淵) 또는 곰실이라고 한다.

3. 가구 분포

총 72세대가 거주하며 순흥 안씨(順興安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